

2009 DESIGN BIENNALE 광주 Design Biennale THE CLUE 더 나은 세상을



▲ 디자인비엔날레 폐막 이후 국제 구호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에 기증되는 '꽃수세미' 작품.

▼ 재단에 기증된 이탈리아 프리올리모자이크 학교의 작품

나눔으로 더 빛나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제3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18일~11월4일)의 출품작이 국제 구호단체 등에 잇따라 기증된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최신 디자인 동향만을 소개하는 단순한 디자인 전시에서 벗어나 출품작 경매를 통해 구호 단체를 지원하는 '나눔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다.

먼저 지난 2006년 MBC TV 드라마 '궁'의 의상을 제작했던 디자이너 배영진(53)씨가 '의(衣)색션'에 출품한 '천개의 인형, 천개의 한복'은 모두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에 기증됐다. '천개의...'는 높이 50cm의 인형 1천개에 흰 저고리, 검정치마, 털을 단 배자 등 각기 다른 1천벌의 한복을 입힌 작품이다.

흰 광목 소재 봉제인형들이 조선 후기부터 근현대까지 소재와 색, 디자인이 다양한 한복을 갖춰 입혀 관람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이 작품은 화장품회사 더페이스샵의 1억원 후원으로 만들어졌고, 유니세프의 기금 모금을 위해 판매한다. 현재 전시 공간이 광주비엔날레관 기념품 상점에서 17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또 프로젝트 전시 '살림'전에 출품된 '꽃수세미'도 이웃 사랑을 위해 기증된다. '꽃수세미'는 서울 양천구, 광주, 대구지역 자원봉사자 4천283명이 참가해 5만1천208개의 수세미를 뜨게질 한 뒤 길게 이어붙인 작품이다.

이를 위해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지난 8월부터 2개월 동안 아크릴 실로 수세미를 뜨게질했다. 4천여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과 방향을 맞춘 중·

고등학교들도 봉사에 참여해 더욱 의미가 큰 작품이다.

이 작품은 전시가 끝난 뒤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에 기증되고, 경매를 거쳐 수익금 전액을 네팔의 가난한 어린이 교육 지원 활동에 쓴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꽃수세미' '천개의 인형...' 등 출품작 국제 구호단체 기증 경매 수익금 어린이들 돕기

▲ 디자인비엔날레 폐막 이후 국제 구호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에 기증되는 '꽃수세미' 작품.

▼ 재단에 기증된 이탈리아 프리올리모자이크 학교의 작품

▲ 디자인비엔날레 폐막 이후 국제 구호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에 기증되는 '꽃수세미' 작품.

▼ 재단에 기증된 이탈리아 프리올리모자이크 학교의 작품



설 총현원에 전달된다.

천연물 모자이크 분야의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이탈리아의 프리올리모자이크 학교 소속 작가들이 만든 작품도 최근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에 기증됐다. 재단은 이 작품을 영구 보관할 계획이다.

조각보, 창살문양, 경첩 등 한국의 문양과 이탈리아의 문양이 결합된 이 작품은 1천만원대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회 대회를 치른 디자인비엔날레 출품작이 기증된 것은 지난 2회 때 미국 참여작가인 엔디 그랙의 가구가 유일하다.

이 밖에 미스코리아들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나눔 행렬에 동참한다. 미스코리아 진·선·미 출신으로 결성된 자원봉사 단체 '녹원회'(회장 최명숙 84년 미스코리아 진)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미스코리아와 함께 하는 디자인비엔날레 체리티'(Design Biennale Charity) 행사를 연다.

미스코리아와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참여 큐레이터, 시민이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판매하고, 수익금을 기부하는 행사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깊어가는 가을, 클래식 선율에 흠뻑

가을 낭만을 더해주는 작은 규모의 클래식 음악회가 열린다. 아름다운 현악앙상블과, 플루트, 피아노가 들려주는 멜로디에 빠져보자.

◇이니스 앙상블 초청 연주회=서울에서 활동하는 젊은 현악 연주자들이 꾸린 이니스앙상블이 나주에서 공연을 갖는다. 나주에서 꾸준히 연주회를 열고 있는 무지크 바움 초청공연으로 준비된 음악회다. 22일 오후 7시 나주문화예술회관. 이니스앙상블은 이재정(바이올린·리더), 채경애(바이올린), 김영정(비올라), 이현정(첼로)씨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연주회에서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듀오 1번', 멘델스존의 '현악 4중주 3번 작품 44',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뮤직'을 들려준다.

또 신정문·이수연·김재은·윤소희씨로 구성된 'LANG 현악사중주단'이 찬조출연. 바버의 '현의 위한 아다지오',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32번 세', 김선철 곡 '현악사중주-흑과 백'을 연주하며 나가현(나주중 1)군이 역시 김선철씨가 작곡한 '어느 구두약이 소년의 노래'를 연주한다. 문의 061-330-8758.

◇에펠드 플루트 앙상블 연주회=플루티스트 이현경(광주시립교향악단 플루트 수석·사진)씨가 이끄는 에펠드 플루트 앙상블 정기연주회가 23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연주 레퍼토리는 모차르트의 '작은별 주제에 의한 변주곡', 도플러의 '안단테와 론도', 메르카단테의 '세 개의 플루트를 위한 세 개의 세레나데', 제닌의 '베니스의 카니발 작품 14' 등이다. 김윤희·민정윤·민정윤·김란·조민희·이윤지씨 등이 출연한다. 문의 010-8625-6416.

◇피아노 듀오 연주회=광주피아노 듀오협회(회장 김명·사진)가 주최하는 38번째 음악회로 오는 26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출연자는 이기미·이혜수·유경리·박수미·문마리아·배진희·이근영·임정아·박행숙·한정숙씨다. 연주 레퍼토리는 생상스의 '죽음의 춤', 리스트의 '헝가리 민속 멜로디 주제에 의한 판타지아', 쇼스타코비치의 '콘체르티노 작품 94', 팔라의 '두개의 에스파냐 춤 1번', 거쉬윈의 'I got rhythm 변주곡' 등이다. 문의 010-6640-387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빛고를 전국 시낭송대회 24일 남구 서동 드림아트홀

시를 사랑하는 이들의 시낭송 실력을 겨루는 '제1회 빛고를 전국 시낭송대회'가 24일 오후 1시부터 광주시 남구 서동 드림아트홀에서 열린다.

아시아서적문화사(발행인 김명철)가 주최하는 이번 시낭송대회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신청자를 접수해 본선에 진출한 문인 32명이 무대에 나서 경연을 펼친다. 아시아서적문화사는 시의 대중화와 작가들의 시낭송 역량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시낭송대회를 제정했다.

이날 결선을 통해 대상 1명, 금상 1명 등 모두 9명을 시상하며 대상 100만원을 포함 총 2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 수상자 전원에게는 상장과 '서적문화아카데미'가 발행하는 시낭송 인증서가 수여된다. 문의 062-233-8816.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서양화가 이규환 서울 개인전 21~27일 광주시립미술관 분관서

서양화가 이규환씨가 21~27일 광주시립미술관 서울 분관인 인사동 갤러리라이트에서 아홉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이씨는 신문지와 종이를 재료로 회화와 조각을 접목시킨 '부조(浮彫) 회화'를 선보이고 있는 작가이다. 이번 전시에서 이씨는 '내 마음의 보석상자', 꿈과 희망'을 주제로 신문지를 반죽해 대나무를 형상화한 신작을 선보인다. 회화의 한계를 뛰어넘어 대숲의 공간을 시각적으로 연출한 작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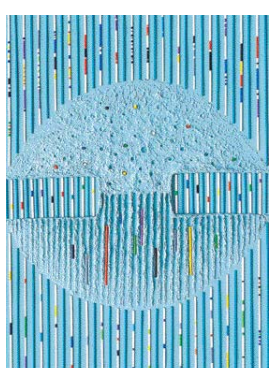
매일 벌어지는 일상의 단편을 담은 신문지는 현대인의 고단과 방황, 외로움 등을 담고 있는 재료이다.

또 화려한 색과 무채색을 대비시켜 꿈과 현실의 벽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선과 면의 조합을 통해 착박한 현실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일상을 포착했다.

광주대 디자인학과를 졸업한 이씨는 일본, 서울, 광주 등지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국제현대미술특별기획전, 한일현대미술 특별기획전 등에 참가했다.

또 전시 기획자라도 활동하며 제21회 남부현대 미술제, 대한민국 청년작가 3040전, 광주현대미술 세월 40년 전 등을 기획했다.

광주시립미술관 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미술협회, 에쁘고 미술전문지 편집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2-725-004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내 마음의 보석상자'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초 3~고 1 신규단원 모집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

응시 자격은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1학년까지며 지정곡 '고향의 봄'과 자유곡(악보 지참) 한곡을 부르면 된다. 실기 전형은 오는 31일 오후 3시 합창단 연습실에서 열린다.

연습은 화·목요일(오후 6시30분~8시30분) 진행되며 단원에게는 단복과 간식을 제공하고, 정기 연주회 때는 수당을 지급한다. 문의 062-529-112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메가박스

1관	디스트릭트9 (184)	최고급관
2관	정승필 실종사건 (154)	
3관	써로게이트 (154)/애자 (154)	
4관	내사랑 내결에 (124)	
5관	나는 비와 함께간다 (184)	
6관	호우시절 (124)	
7관	부산 (184)	
8관	디스트릭트9 (184)	
9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 아프리카 주자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www.megabox.co.kr
구.런던역사거리 ☎1544-0600

콜롬버스시네마

1관	써로게이트 (154)	
2관	호우시절 (124)	
3관	국가대표 (124)/파이널데스토티네이션 (154)	
4관	디스트릭트9 (184)	
5관	애자 (154)	
6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7관	내사랑 내결에 (124)	
8관	정승필 실종사건 (154)	
9관	부산 (184)	
10관	나는 비와 함께간다 (184)	

필드사관 영화사관 • 메: www.joycbc.com/ 1588-7941
상무팀 (상무부원과 이메일 사이) 메남팀 (무역화관팀)

1588-7941 상무부원명 변경-(1번 or 2번)→0번

하미시네마

1관	애자 (154)	
2관	계이머 (184)	
3관	국가대표 (124)	
4관	정승필 실종사건 (154)	
5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6관	디스트릭트9 (184)	
7관	호우시절 (124)	
8관	내사랑 내결에 (124)	
9관	부산 (184)	
10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 500여대 넘는 주차장(3시간 무료) • 365 매일 심야
• 이동통신사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
• 해미 수영장 269-5757 • 해미 볼링장 262-0925
• 해미 골프장 251-5060 • 해미 담구장

www.hamichema.co.kr/ 1588-9120
전대무한 하미포박스 ☎267-7777

씨너스전대

1관	팬도럼 (184)	
2관	부산 (184)/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3관	굿모닝프레지던트 (184)	
4관	나는 비와 함께간다 (184)/국가대표 환경편 (124)	
5관	내사랑 내결에 (124)/정승필 실종사건 (154)	
6관	디스트릭트9 (184)	
7관	굿모닝프레지던트 (184)	

• 매일심야 상영한다 •
ARS 전화예매 1544-0070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세너스극장 사우나(오전5시~오후11시)

www.cinemas.co.kr/ 1544-0070
복구보건소 건너편 ☎511-1000

제일시네마

1관	굿모닝프레지던트 (184)	
2관	굿모닝프레지던트 (184)	
3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4관	정승필 실종사건 (154)	
5관	내사랑 내결에 (124)	
6관	나는 비와 함께간다 (184)/부산 (184)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 세무소 옆 호림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www.primuschema.com/www.jellicinema.co.kr •
총상 3기 ARS 전화예매 ☎227-1960